깨달음과 아름다움 추구한 화승의 세계

국립중앙博 불교회화실 전시 교체
'화승(畫僧) – 끝나지 않은 이야기' 展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과 연계해
'통도사 팔상도 밑그림' 등 14점 전시
조선 화승의 작품과 예술 세계 조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阿彌陀極樂會圖, 307.5cm×244cm)' –화승 의균(義均)의 대표적인 불화로, 아름다운 극락의 세계를 간결한 구도와 최소한의 상징만으로 그려냈다.



'쌍월당대선사 진영(181.5cm×80.7cm)' –축연이 그린 쌍월당 성활 스님의 진영. 명암법과 원근법 등 새로운 근대 양식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이 1월 28일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의 전시를 교체했다. 교체 전시 '화승(畫僧) -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조선의 승려 장인(3월 6일까지)'과 연계한 전시로, '통도사 팔상도 밑그림(유성출가상)' 부터 근대에 활동하며 조선 후기 승려 장인의 맥을 이었던 화승의 작품까지, 특별전에서 소개하지 못한 14점의 작품과 화승의 예술세계를 소개한다. 깨달음과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했던 화승의 예술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조선의 승려 장인은 출가한 수행승이자 예술가로서 조선시대 문화를 풍부하게 만든 또 다른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화승 장인만 무려 2400여 명에 이른다. 조선시대는 이른바 승려 장인, 승장(僧匠)의 시대였다. 사찰 전각의 축소와 중건을 비롯하여 내부에 봉안되는 불상, 불화, 범종과 같은 불교미술품들이 승장에 의해 조성됐다. 사찰은 조선시대 미술의 제작처이자 소비처로서 중요한 공간이었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베일에 싸여있다. 일생동안 불보살을 그림으로써 성불하고자 했던 이들을 화승이라고 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인근 지역 불사에 초빙되어 불화를 그렸다. 먼 거리, 어려운 불사를 마다하지 않고 작업하며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제자에게 전수했다. 시간이 흘러 하나의 유파를 이루기도 하고 다른 유파와 협동 작업도 하면서 지역별로 양식적인 차이가 뚜렷한 조선 불화의 조형성이 만들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은 우리나라 불교회화의 흐름과 특징을 살필 수 있도록 고려와 조선시대의 여러 불화를 선별하여 전시하고 있다. 불교회화실은 6개월 주기로 전시를 교체하고 있다.

△'통도사 팔상도 초본(유성출가상, 조선 18세기, 종이에 먹)' 은 1775년 화승 수십 명이 함께 조성한 '통도사 팔상도(보물 제1041호)' 중 '유성출가상' 의 밑그림이다. 팔상도는 부처님의 생애를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으로, 그 중 '유성출가상' 은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기 위해 궁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뒷면에는 근대에 널리 이름을 알렸던 화승 철유(1851~1917)가 1891년 금강산 건봉사 팔상전 불사에 이 밑그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밑그림의 전승과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밑그림이라는 본래의 성격을 넘어 완성된 불화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지장보살(조선)' 은 석민, 굉원, 치흠, 풍연, 추계 5명의 화승이 그린 작품이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부처님이 열반한 뒤부터 미륵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의 무불시대에 육도의 모든 중생을 교화 · 구제하는 자비로운 보살로, 모든 중생을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한다. 이 그림은 대구 북지장사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비롯하여 명부시왕과 사자, 판관이 주위에 묘사되어 있다.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阿彌陀極樂會圖, 조선, 동화사 중전 봉안)' 은 동화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 의균의 대표 작품으로, 아름다운 극락의 세계를 간결한 구도와 최소한의 상징만으로 그려냈다.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금강장보살, 제장애보살 등 여섯 보살이 둥글게 원을 그리듯 그려져 있다.

△'쌍월당 대선사(雙月堂大禪師眞影, 조선)' 는 화승 축연이 그린 승려 쌍월당 성활의 진영이다. 찬문을 기록한 붉은 족자의 축두(軸頭)에는 '혜산(蕙山)' 이라는 작은 글씨가 남아 있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불화를 그렸던 축연이 그린 진영임을 알 수 있다. 쌍월당의 안면, 회색 장삼과 붉은 가사의 표현에 음영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배경에 놓인 청화백자 연적과 층층이 쌓여 있는 책의 묘사에서 명암법과 원근법이 보이는 그림은 근대기 새로운 양식을 보여준다. 사실적 표현을 추구한 점 또한 이전 시기의 불화들과는 다른 형식으로, 근대기 불화의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는 진영이다.

△'권수정업왕생첩경도(조선)' 은 각수승 연희가 조성한 목판화로, 강희(康熙)21년 경상도 울산 원적산 운흥사에서 개간된 〈권수정업왕생첩경(勸修淨業往生捷徑)〉을 한지에 목판인쇄한 것이다. 상단에는 아미타팔대보살을, 하단에는 상품상생(上品上生)에서 하품하생(下品下生)에 이르는 구품(九品)의 근기에 따라 왕생하는 모습을 연화줄기가 자라나는 연못을 배경으로 나타내었다.

△'고운사 시왕도 초본' (제1진광대왕)은 신겸의 작품으로, '지옥의 여덟째 왕 평등대왕(第八平等大王)' 의 밑그림이다.

△'지옥의 여덟째 왕 평등대왕' (第八平等大王)은 고운사 시왕도 밑그림의 완성작이다. 평등대왕은 죽은 사람의 100일째 일을 관장하는 왕으로, 팔한팔열(八寒八熱) 지옥을 다스린다. 죄복의 업을 공평하게 다스린다고 하여 평등왕이라 한다. 톱의 의해 몸이 잘리는 거해(鋸解) 지옥을 다스리기도 하는데, 그림에서는 형틀 속에 가둬두고 톱질하는 장면과 끓는 열탕 속에 빠뜨리는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다.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 은 또 하나의 아미타극락회도로, 신겸 등이 그린 작품으로, 약사불이 사천왕과 보살 및 제자들을 거느리고 설법하는 모습을 그렸다. 약사불의 양 옆에는 젊은 모습의 제자 아난과 나이든 모습의 가섭이 있고, 화면 윗부분에는 다시 십대제자를 작게 그렸다. 이들은 출가한 승려이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나한이다. 부처님이 설법하는 회상에는 이처럼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른 성중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묘법연화경(조선)' 은 대표적인 불교 경전의 하나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권5~7(보물)에 해당되는 목판본이다. 한 장에 모든 권속을 등장하게 한 구도가 가장 크고 새김이 정교하여 어느 〈법화경〉 변상도보다도 뛰어난 작품이다.

△'묘법연화경(상지은니묘법연화경, 국보, 고려)' 은 상수리나무 열매로 물들인 갈색 종이에 은니로 사경한 것으로, 7권 7첩의 완질본이다. 접장 뒷면에 영암도갑사유전(靈岩道岬寺留傳), 당사유전(黨司留傳)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도갑사에 봉안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화승 약효가 그린 '현왕도' , 또한 그의 화풍이 느껴지는 '산신도' , 축연의 '아미타극락회도' , '불설대승조상공덕경 권하' 등이 전시된다. (02)2077-9000.



2022년도 불교달력 사진작품 공모전 금상 수상작 김유식 _선 그리고 사찰

도반HC, 달력 사진 · 미술작품 공모

접수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 350만원, 4월 15일 개별통보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사장 주혜 ·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가 '2023년 제2회 불교달력 사진 · 미술작품 공모전' 을 진행한다.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달력으로 제작 가능한 사계절(1~12월)을 담은 12컷의 사진 및 미술작품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jpg 또는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시 사진 및 작품 크기는 가로 305mm×세로 307mm 이상 해상도 300dpi로 원본 제출하면 된다. 심사발표는 4월 15일 개별 통보한다. 시상내역은 대상(350만원, 1명), 금상(250만원, 1명), 은상(200만원, 2명), 동상(100만원, 2명), 입선(10만원, 컷, 작품 당)이다.

㈜도반HC는 공모전 선정기준으로 △선정 주제에 맞는 12개 사찰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과 작품 △사찰 및 불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진과 작품 △새로운 구도 및 참신한 구성의 사진과 작품 등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세부주제로는 △사찰 관련 - 사찰풍경, 석탑, 적멸보궁, 마애불, 석등, 암자 등 △불교 관련 - 동자승, 부처님, 부처님일대기, 수행, 꽃살문, 연등 △문화유산 -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 성지순례(국내외) △자연 주제 - 연꽃, 야생화, 나무, 동물 △국내외 여행지 - 바다, 둘레길, 산 △미술작품 - 수채화, 유화, 수묵화, 펜화, 켈리그라피, 일러스트, 회화, 종이공예, 판화 등을 추천한다.

접수는 도반HC 또는 승소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이메일(dobancalendar@naver.com)또는 우편(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230호 도반HC 달력사업부 앞)으로 하면 된다. 문의(02)720-0677, 0670. 이번 공모전을 주관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는 "기존 불교 달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롭고 참신한 작품 발굴과 함께 신규 작가들을 지원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출품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